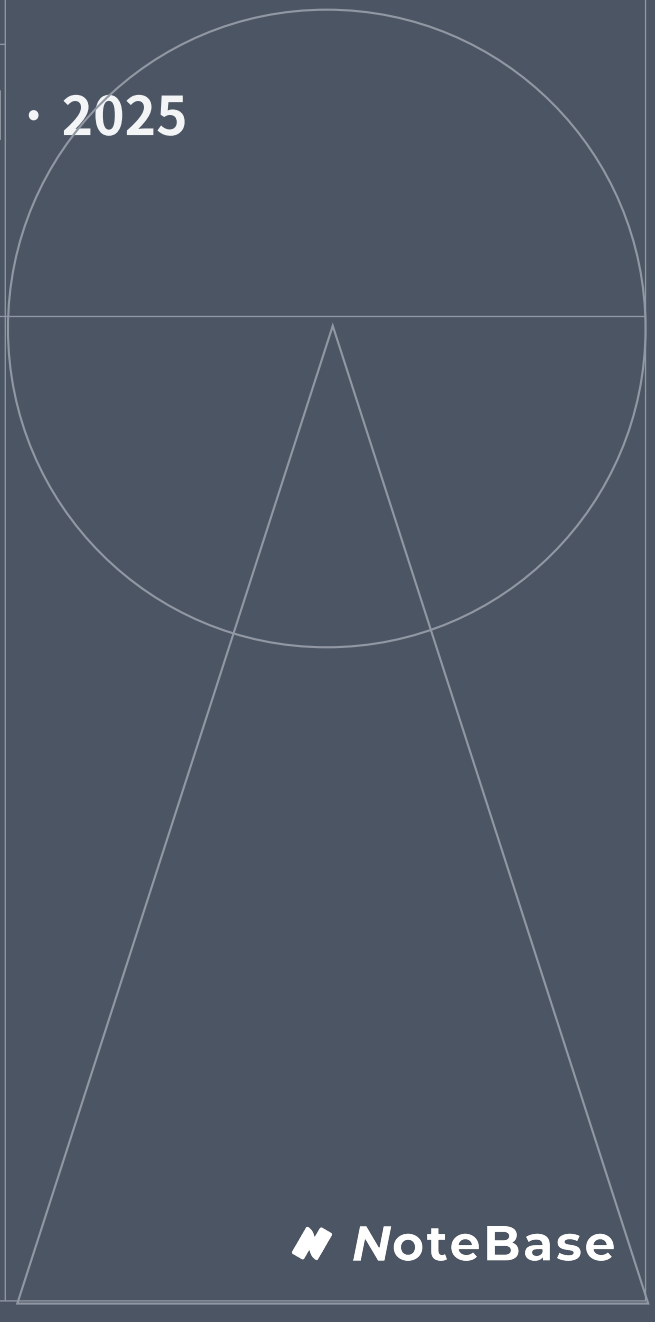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5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5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다듬은 말 사용
- 다듬기(국어 순화)의 의미: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쉽고 바르고 고운 말'로 다듬는 것, 생소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것
- 다듬기의 목적 및 효용: 국어의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 향상, 국어 문화와 민족 문화 발전, 경제적 손실 방지

① "취업 박람회 부스 신청"에서 '부스'를 '기념관'으로 수정한다.
② "금일 회의에 조치 사항 보고"에서 '금일'을 '오늘'로 수정한다.
③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함"에서 '제고함'을 '높임'으로 수정한다.
④ "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에서 '매뉴얼'을 '지침'으로 수정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문맥과 뜻에 맞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듬은 말은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표현을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되, 원래 표현의 뜻과 사용 맥락을 정확히 유지한 말이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말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바꾼 말이 문장 속 대상과 기능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부스’는 박람회장에서 홍보·상담·전시 등을 위해 마련한 구획이나 공간을 뜻하지만, ‘기념관’은 인물이나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해 자료를 전시한 시설을 뜻한다. 두 말의 뜻이 다르므로 적절한 수정이 아니다. 문맥에 맞게는 ‘취업 박람회 전시관 신청’ 또는 ‘취업 박람회 홍보관 신청’처럼 다듬을 수 있다.
② O — ‘금일’은 ‘오늘’을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이다. ‘금일’을 쉬운 말인 ‘오늘’로 바꾸어도 ‘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는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③ O — ‘제고하다’는 정도나 수준을 높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함’을 ‘교육의 전문성을 높임’으로 바꾼 것은 뜻과 문맥에 맞다.
④ O — ‘매뉴얼’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적은 안내를 뜻한다. ‘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를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로 바꾸면 의미가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오답 포인트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었다는 형식만 보고 ①을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부스’와 ‘기념관’은 모두 전시 공간과 관련될 수 있을 뿐, 기능과 뜻이 서로 다르다. 다듬은 말은 원래 말의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래 표현의 정확한 뜻을 먼저 확인한 뒤, 바꾼 말이 그 뜻과 문장 속 기능을 그대로 나타내는지 판단한다. 쉬운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면 적절한 다듬기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말 다듬기에서는 ‘쉬운 우리말’과 함께 ‘원래 뜻의 유지’를 확인한다.

NoteBase

2. 다음 글의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다. 머신러닝은 학습 형태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된다. 지도학습은 입력과 이에 대응되는 출력을 연관시키는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주로 입력과 출력 쌍이 데이터로 주어지고 그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며, 입력값에 대응되는 정답 데이터가 항상 존재한다. 지도학습에는 입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범주를 나누는 '분류' 등이 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출력 없이 주어진 입력만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입력값 사이의 규칙성을 스스로 찾아낸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종류도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지도학습에는 데이터를 유사한 것끼리 묶는 '군집화' 등이 있다. 강화학습은 앞선 두 학습과 차원이 다른 알고리즘이다. 강화학습도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의 일종이지만 주어진 입력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면 보상이 주어지며, 이러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는 학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이러한 머신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카드사 고객들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고객들을 소비 패턴이 유사한 몇 개의 집단으로 묶는다면 이는 [(나)]을 활용한 것이다. 한편, 고객의 나이, 직업, 소득 정보와 그를 통해 얻은 신용 점수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여 '위험 고객'이라는 정답 데이터를 도출하였다면 [(다)]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나)	(다)
①	지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②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③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④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도학습·비지도학습·강화학습의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가 어느 학습 방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지도학습: 입력과 그에 대응하는 정답이 함께 주어진 데이터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식이다. 분류가 대표적이다.
비지도학습: 정답 없이 입력 데이터에 숨어 있는 구조나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유사한 데이터를 묶는 군집화가 대표적이다.
강화학습: 정답을 직접 주는 대신 행동의 결과에 보상을 부여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행동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지도학습과 공통점이 있으므로 (가)는 비지도학습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 (나), (다)를 각각 지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배열한 점이 모두 틀렸다. 정답 없이 학습하는 (가)와 군집화를 활용한 (나)는 비지도학습이고, 정답 데이터인 '위험 고객'을 도출하는 (다)는 지도학습이다. 올바른 배열은 '비지도학습-비지도학습-지도학습'이다.
② X - (나)의 비지도학습과 (다)의 지도학습은 맞지만, (가)를 지도학습으로 본 부분이 틀렸다. (가)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리키므로 비지도학습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가)의 비지도학습은 맞지만, (나)와 (다)가 서로 바뀌었다. 유사한 소비 패턴에 따라 고객을 묶는 군집화는 비지도학습이고, 고객 정보와 신용 점수의 관계를 학습해 '위험 고객'이라는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지도학습이다.
④ O - (가)는 정답이 없는 비지도학습, (나)는 군집화를 이용하는 비지도학습, (다)는 정답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도학습으로 모두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강화학습을 비지도학습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군집화와 분류를 혼동하기 쉽다. 본문은 강화학습이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지도학습의 일종이라고 설명한 것이며, 보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을 비슷한 집단으로 묶는 것은 군집화이므로 비지도학습이고, '위험 고객'이라는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지도학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력과 정답의 쌍이 있으면 지도학습, 정답 없이 데이터의 유사성이나 규칙을 찾으면 비지도학습, 행동 결과의 보상을 최대화하면 강화학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답 쌍은 지도, 군집화는 비지도, 보상은 강화이다.

NoteBase

3.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 요>

○ 제목: 농촌 지역민의 식품 사막화 문제와 개선 방안

I. 식품 사막화의 개념과 실태
  1. 개념: 신선 식품 접근의 어려움 및 건강 문제
  2. 실태: 식품 사막화 사례 증가로 인한 농촌 지역민의 건강 불평등 심화

II. 농촌 지역 식품 사막화의 원인
  1. 신선 식품 접근성 및 구매력 부족
  2. 식품 유통 기반 시설의 불균형
  3.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식품 정책 미비

III. 농촌 지역 식품 사막화 문제의 개선 방안
  [ ]

① 농촌 지역민에 적합한 식품 유통 기반 시설의 구축
② 농촌 지역 전통시장의 유통 기반 시설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
③ 농촌 지역 소비자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식품 정책 보완
④ 농촌 지역민을 위한 공공형 신선 식품 접근 및 구매 경로 확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개요의 제목과 앞부분에서 제시한 문제·원인에 맞추어 개선 방안이 일관되게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요는 글의 중심 화제와 전개 순서를 항목별로 조직한 설계도이다. 개선 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 개요에서는 신선 식품의 접근성·구매력 부족, 유통 기반 시설의 불균형, 식품 정책의 미비가 원인이므로 각각 접근 및 구매 경로 확대, 유통 기반 시설 구축, 식품 정책 보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농촌 지역민에게 적합한 식품 유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식품 유통 기반 시설의 불균형'이라는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전통시장의 유통 기반 시설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이다. 유통 기반 시설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시설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개선하고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③ O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식품 정책 보완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식품 정책 미비'라는 원인에 직접 대응하므로 적절하다.

④ O
공공형 신선 식품 접근 및 구매 경로를 확대하는 것은 '신선 식품 접근성 및 구매력 부족'을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유통 기반 시설'이라는 공통어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축소'는 식품 접근성을 더 낮출 수 있어 글의 개선 방향과 반대된다. 핵심은 소재가 같은지가 아니라 원인을 실제로 해소하는 방향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요의 개선 방안은 각 항목을 앞부분의 원인과 일대일로 연결해 판단한다. 원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면 적절하고, 원인을 유지하거나 심화하는 방안이면 적절하지 않다.

암기 포인트

문제-원인-해결은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족·불균형·미비의 해결은 확대·균형·보완이다.

NoteBase

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한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술어와 그 서술어가 요구하는, 또는 그 서술어의 개념 구조를 충족시키는 성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성분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서술어가 되는 용언이 필요로 하는 말들을 보충어라 한다. 이들 중에는 그것이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필수적인 것이 있고, 서술어의 개념 구조상 필요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 없이도 문장이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의적인 것이 있다. 예컨대 "나무가 불에 다 탔다."라는 문장에서 '타다'가 서술어가 되기 위해서는 타는 대상과 그것을 타게 하는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 함께 쓰인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수단을 나타내는 말인 '불에'가 없어도 온전하게 성립하므로, '나무가'는 필수적 보충어이고 '불에'는 수의적 보충어이다.

① "방이 남향이라 아주 밝다."에서 '방이'는 수의적 보충어이다.
② "아이들이 손으로 공을 던진다."에서 '손으로'는 필수적 보충어이다.
③ "그는 이웃을 친구로 만들었다."에서 '친구로'는 수의적 보충어이다.
④ "그녀는 역사에 아주 밝았다."에서 '역사에'는 필수적 보충어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요구하는 필수적 보충어와, 생략해도 문장 성립에 지장이 없는 수의적 보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수적 보충어는 서술어가 특정한 의미로 쓰일 때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그 성분을 빼면 문장이 불완전해지거나 서술어의 의도한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의적 보충어는 서술어의 개념 구조에 참여하지만 문장에서 생략해도 온전한 문장이 성립하는 성분이다.
같은 서술어라도 쓰인 의미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 달라진다. '방이 밝다'의 '밝다'는 주체인 '방이'를 요구하고, '역사에 밝다'의 '밝다'는 '어떤 분야에 정통하다'라는 뜻이므로 대상인 '역사에'를 요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방이 남향이라 아주 밝다.'에서 '밝다'는 밝은 상태의 주체를 요구하므로 '방이'는 필수적 보충어이다. 틀린 표현은 '수의적 보충어'이며, 올바르게는 '필수적 보충어'이다.
② X — '아이들이 손으로 공을 던진다.'에서 '던지다'는 던지는 주체와 던지는 대상을 요구하지만 수단인 '손으로'는 생략해도 '아이들이 공을 던진다.'가 온전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손으로'는 수의적 보충어이다. 틀린 표현은 '필수적 보충어'이며, 올바르게는 '수의적 보충어'이다.
③ X — '그는 이웃을 친구로 만들었다.'에서 '만들다'는 '누구를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결과 상태인 '친구로'를 요구한다. 틀린 표현은 '수의적 보충어'이며, 올바르게는 '필수적 보충어'이다.
④ O — '그녀는 역사에 아주 밝았다.'의 '밝다'는 '어떤 분야에 지식이 많고 잘 알다'라는 뜻이다. 이 의미를 완성하려면 잘 아는 대상·분야인 '역사에'가 필요하므로 '역사에'는 필수적 보충어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에 모두 '밝다'가 쓰였다는 점이 함정이다. ①의 '밝다'는 밝은 상태를 나타내어 주체인 '방이'를 요구하고, ④의 '밝다'는 어떤 분야에 정통하다는 뜻이어서 그 분야인 '역사에'를 요구한다. 또한 조사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필수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맥 속 서술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한 뒤, 표시된 성분을 뺀 문장이 그 의미대로 온전하게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생략하면 불완전해지거나 의도한 의미가 성립하지 않으면 필수적 보충어이고, 생략해도 온전하면 수의적 보충어이다.

암기 포인트

필수성은 조사 모양이 아니라 '그 뜻의 서술어가 그 성분을 요구하는가'로 판단한다.

NoteBase

5.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 의존명사를 어미의 일부와 혼동하여 앞말에 잘못 붙여 적는 경우가 많다. 의존명사 '지'가 어미인 '-ㄴ지'와 혼용되면서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의존명사 '지'는 "집을 떠나온 지가 3년이 되었다."와 같이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미와 구별된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즉 '시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어미와 구별된다.

① 그를 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② 나는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몰랐다.
③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은지 검사를 진행했다.
④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는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지'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는지/-은지/-ㄴ지'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뜻하며 앞말과 띄어 쓴다. '만난 지', '떠나온 지'처럼 뒤에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 자주 온다.
어미 '-는지/-은지/-ㄴ지': 사실이나 판단에 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며 앞말에 붙여 쓴다. '틀렸는지', '괜찮은지', '부지런한지'처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만난 지'의 '지'는 그를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 '만난'과 띄어 쓴 것이 적절하며 ㉠에 해당한다.
② X — '틀렸는지'는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를 의존 명사로 보아 '틀렸는 지'로 띄는 것은 잘못이며, 올바른 표기는 원문과 같은 '틀렸는지'이다.
③ X — '괜찮은지'는 물을 마셔도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괜찮은 지'가 아니라 원문과 같이 '괜찮은지'로 쓴다.
④ X — '부지런한지'는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부지런한 지'가 아니라 원문과 같이 '부지런한지'로 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지'가 들어 있지만, ①만 '그를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꽤 오래'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②~④의 '지'는 모두 의문의 의미를 만드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가 '어떤 일이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으로 해석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무엇인지, 맞는지, 좋은지'처럼 의문이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면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지'는 띄고, 의문을 나타내는 '-는지/-은지/-ㄴ지'는 붙인다.

NoteBase

6.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소고기 시장에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부터 나타난다. 가격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반면 소비자들은 소고기 가격이 높지 않아서 더 많이 사려는 현상이 생긴다.
>
> (나) 소고기의 값이 치솟자,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쳤고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가격상한제를 결정했다. 정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함을 알면서도 인위적인 가격 통제의 길을 선택한다. 마침내 정부는 상한 가격을 고시하고 그 이상의 값을 받는 판매자는 처벌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제 소고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 보자.
>
> (다) 가게에는 소비자들이 모여들고, 정육점 주인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리면 소고기를 간신히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전날 밤부터 기다린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제 소비자도 불편하고, 정육점 주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한다.
>
> (라) 어느 날 그는 소고기를 팔지 않고 빼돌려 이 기회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선심이나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선착순에 의한 배정 원칙이 퇴색되고 사사로운 인정에 따른 배정이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 경제가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라) – (가) – (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상한제가 시행된 뒤 소고기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원인과 결과의 연결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나) 정부가 소고기 가격상한제를 결정하고 상한가격을 고시한다.
2. (가)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된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이고, 낮은 가격에 더 사려는 소비자는 수요량을 늘린다.
3. (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줄서기와 선착순 배분이 나타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4. (라) 판매자가 물량을 빼돌려 친분 있는 사람에게 주려 하면서 선착순 원칙이 무너지고 자의적인 인정에 따른 배분이 나타난다.

왜 이 순서인가: (나)의 정책 시행이 (가)의 초과수요를 낳고, 초과수요가 (다)의 줄서기를 만들며, 줄서기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뒤 (라)의 자의적 배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시장 변화는 (나)의 가격상한제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가)가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순서 '(가)-(나)-(다)-(라)'는 올바르게는 '(나)-(가)-(다)-(라)'이다.

② X — (나)는 이후 사건의 원인인 가격상한제 시행 장면이므로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앞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가)-(다)-(라)-(나)'는 올바르게는 '(나)-(가)-(다)-(라)'이다.

③ O — (나)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한 뒤 (가)에서 공급량 감소와 수요량 증가가 나타나고, 이어 (다)의 줄서기 배분을 거쳐 (라)의 자의적 배분으로 전개된다.

④ X — (라)의 '선착순에 의한 배정 원칙이 퇴색'했다는 표현은 선착순 배분을 보여 주는 (다)가 이미 앞에 나왔음을 전제한다. 틀린 순서 '(나)-(라)-(가)-(다)'는 올바르게는 '(나)-(가)-(다)-(라)'이다.

오답 포인트

(가)를 일반적인 가격상한제 설명이라고 보아 첫머리에 놓기 쉽지만, (가)의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이라는 조건은 실제 시행을 알리는 (나)를 전제한다. 또한 (라)의 '이제 선착순에 의한 배정 원칙이 퇴색되고'는 (다)의 줄서기와 선착순 배분을 이어 받는 결정적 연결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이제', '이처럼', '그 원칙이 퇴색되고'처럼 앞 내용을 전제하는 지시·접속 표현을 확인한다. 이 글은 정책 결정, 시장 변화, 선착순 배분, 자의적 배분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제 결정 → 공급량 감소·수요량 증가 → 줄서기 → 자의적 배분의 흐름이다.

NoteBase

7.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약 A라는 사람의 좌뇌나 우뇌가 완전히 손상되었다면 A의 자아는 살아 있는 것인가? 의학적 사례에서는 한쪽 뇌만 가진 그 사람이 육체가 살아 있으며 인지 능력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자아가 온전히 유지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의 두 몸을 준비하고 A의 뇌를 반으로 갈라 한쪽 몸에는 좌뇌만 이식하고 다른 쪽 몸에는 우뇌만 이식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A의 자아와 관련해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의 자아는 더는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좌뇌만 이식한 몸이나 우뇌만 이식한 몸 중 하나에 A의 자아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몸 모두에 A의 자아가 살아 있으며 둘 다 A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좌뇌에만 있다거나 우뇌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좌뇌만 이식한 몸에 자아가 있다면 우뇌만 이식한 몸에도 자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다. 왜냐하면 [(가)]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세 번째 가정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A의 자아는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① 자아는 좌뇌와 우뇌 모두에 있기
② 우리의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도 있기
③ 우리는 하나의 자아를 가지며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 없기
④ 우리는 다중 자아를 가지며 각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 없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빈칸 뒤의 '같은 이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여, 자아의 수와 분할 가능성에 관한 글의 전제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자아가 있으며 그 자아는 둘로 나뉠 수 없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자아가 좌뇌에만 있다면 우뇌에만 있는 몸에도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과 충돌하고, 두 몸에 모두 자아가 있다고 해도 하나의 자아가 둘로 나뉜 셈이 되어 같은 전제와 충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자아는 좌뇌와 우뇌 모두에 있기'는 글의 결론이 아니다. 글은 자아가 좌뇌에만 또는 우뇌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뿐, 자아가 두 뇌에 각각 존재한다고 확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아가 좌뇌에만 있거나 우뇌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다.
② X — '우리의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도 있기'는 글의 전제와 반대이다. 하나의 자아가 두 몸에 동시에 살아 있다고 보면 자아가 둘로 나뉜 셈이 되므로 세 번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우리의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 없다'이다.
③ O — 글은 '우리는 하나의 자아를 가지며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 없다'고 본다. 이 전제 때문에 좌뇌만 이식한 몸에 자아가 있다고 하면 우뇌만 이식한 몸에도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고, 두 몸에 모두 자아가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 '우리는 다중 자아를 가지며'가 글의 전제와 어긋난다. 글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보며 그 하나의 자아가 둘로 나뉠 수 없다고 논증한다. 올바르게는 '우리는 하나의 자아를 가지며 각 자아는 둘로 쪼개질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좌뇌에만 또는 우뇌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를 '좌뇌와 우뇌 모두에 있다'로 바꾸어 읽기 쉽다. 그러나 글이 반복하여 사용하는 모순의 근거는 자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의 자아는 둘로 분할될 수 없다'는 전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왜냐하면 (가) 때문이다' 뒤에 '같은 이유'가 이어지면, 앞의 모순과 뒤의 가정을 동시에 반박하는 공통 전제를 찾는다. 이 글에서는 두 몸에 자아가 생긴다는 결론을 막는 '자아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이 그 공통 전제이다.

암기 포인트

하나의 자아, 분할 불가: 좌뇌·우뇌 어느 한쪽으로도 자아의 생존을 확정할 수 없다.

NoteBase

8. 다음 글의 ㉠ ~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 우리 몸의 지방조직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을 저장한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떨어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조직에서 방출하는 유리지방산이 주도적으로 이용된다. 혈당이 떨어지면 지방조직에서는 인슐린의 지방 분해 억제 작용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몸의 지방조직은 ㉠ 비축한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만든 유리지방산을 혈액으로 방출한다. 이처럼 지방은 공복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
>
> 지방조직은 ㉡ 에너지 저장 창고일 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지방산 대사를 조절하며 각종 호르몬과 생리 활성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이기도 하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이다. 체지방이 많아지면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식욕이 억제되고 신진대사가 빨라진다. 반대로 적게 먹어 체지방이 줄면 렙틴 분비량이 줄어들어 ㉢ 식욕도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유전적으로 렙틴 호르몬이 결핍된 쥐는 태어나자마자 ㉣ 체중이 급격히 늘어 당뇨병에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 그 쥐에게 외부에서 렙틴을 주입하면 체중이 줄고 당뇨병도 개선된다고 한다.

① ㉠: 중성지방을 비축하기 위해
② ㉡: 자체적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③ ㉢: 식욕도 늘어나고
④ ㉣: 체중이 급격히 줄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드러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의미상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맥에 맞는 수정은 앞뒤 문장의 인과관계와 글 전체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체지방이 많을 때 렙틴 분비량이 늘어 식욕이 억제되고 신진대사가 빨라지므로, 체지방이 줄어 렙틴 분비량이 감소하면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공복 시 지방 조직이 이미 비축해 둔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유리지방산을 방출한다고 설명한다. '중성지방을 비축하기 위해'로 바꾸면 공복에 저장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다는 내용과 반대가 된다. 올바른 표현은 '비축한 중성지방을 분해하여'이다.

② X
지방 조직의 기능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대사를 조절하며 여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는 뒤의 설명과 연결되는 지방 조직의 기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올바른 표현은 '에너지 저장 창고일 뿐만 아니라'이다.

③ O
앞에서 체지방이 많아 렙틴 분비량이 늘면 식욕이 억제된다고 했으므로, 체지방이 줄어 렙틴 분비량이 감소하면 식욕은 반대로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식욕도 줄어들고'를 '식욕도 늘어나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X
글에 따르면 렙틴이 결핍된 쥐는 식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체중이 급격히 늘고 당뇨병에 걸린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로 바꾸면 제시된 연구 결과와 반대가 된다. 올바른 표현은 '체중이 급격히 늘어'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체지방 감소 → 렙틴 감소'만 보고 식욕도 함께 감소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식욕은 렙틴 분비량과 반대 방향으로 변하므로 '식욕도 줄어들고'가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 전후 표현을 각각 문장에 넣고, 앞에서 제시한 원인과 뒤의 결과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확인한다. 특히 '반대로'와 같은 접속 표현이 나오면 앞 문장의 관계를 정확히 뒤집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체지방 증가 → 렙틴 증가 → 식욕 억제·신진대사 촉진, 체지방 감소 → 렙틴 감소 → 식욕 증가·신진대사 둔화이다.

NoteBase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화점이나 마트 등 유통 채널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제품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배치하면 소비자가 ㉠ 선호하는 상품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선택의 역설' 이론으로 설명한다.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 소비자는 오히려 적합한 것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더 적합한 대안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들을 ㉡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마트를 방문하게 하고, 그들의 동선에 잼 판매장을 설치하여 구매를 유도하였다. 이때 한 그룹에는 6종의 잼이 진열된 매장을 보여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24종의 잼이 진열된 매장을 보여 주었다. 실험 결과, 24종의 잼이 진열된 매장의 방문자 수가 더 많았지만, 실제 구매자 수는 6종의 잼이 진열된 곳이 더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A 교수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그들의 구매 행위는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작정 선택지를 줄이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소비자는 하나의 대안만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를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이라고 한다. 대안이 하나만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 서로 비교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딸기잼 하나만 제시하면 뭔가 더 찾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심리에 구매를 ㉣ 재촉하고 다른 매장의 잼을 찾아보려 한다는 것이다.

9.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② 소비자는 너무 많은 선택지나 단일 대안을 선호하지 않는다.
③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면 선택의 폭을 없애거나 하나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유통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면 소비자의 구매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 전체에서 반복·대조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최적의 대안을 고르기 어려워지고 선택 후에도 더 나은 대안을 놓쳤다는 불안 때문에 만족과 구매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다.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은 대안이 하나뿐일 때 비교가 불가능하여 선택을 미루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경향이다. 이 글은 소비자가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도, 하나뿐인 대안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틀리다. 글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지고 선택 후 불안도 커져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소비자의 만족감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이다.
② O — 글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구매를 감소시키며, 대안이 하나뿐일 때에도 소비자가 비교를 위해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설명한다. 두 현상을 함께 포괄한 중심 내용이다.
③ X — '선택의 폭을 없애거나 하나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이 틀리다. 글은 무작정 선택지를 줄이는 것도 정답이 아니며, 하나의 대안만 제시하면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와 하나뿐인 대안을 모두 피하고 적절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다.
④ X — 이는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많은 상품을 배치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유통업체의 처음 기대에 가깝다. 실험에서는 24종 매장의 방문자는 더 많았지만 실제 구매자는 6종 매장에서 더 많았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면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제 구매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글 앞부분에 제시된 유통업체의 예상만 중심 내용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선지이다. 그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후의 설명과 잼 실험 결과가 그 예상을 뒤집는다. ③은 선택 과부하만 보고 선택지를 하나로 줄이면 된다고 오해하게 하지만, 마지막 문단의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을 놓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내용 문제에서는 글의 첫 예상보다 역접 표현 뒤에 제시된 필자의 핵심 주장과 마지막 결론을 우선 확인한다. 이 글은 '너무 많음은 선택을 방해한다'와 '하나뿐이어도 선택을 회피한다'는 두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너무 많으면 선택의 역설, 하나뿐이면 단일 대안 회피이다.

NoteBase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화점이나 마트 등 유통 채널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제품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배치하면 소비자가 ㉠ 선호하는 상품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선택의 역설' 이론으로 설명한다.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 소비자는 오히려 적합한 것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더 적합한 대안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들을 ㉡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마트를 방문하게 하고, 그들의 동선에 잼 판매장을 설치하여 구매를 유도하였다. 이때 한 그룹에는 6종의 잼이 진열된 매장을 보여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24종의 잼이 진열된 매장을 보여 주었다. 실험 결과, 24종의 잼이 진열된 매장의 방문자 수가 더 많았지만, 실제 구매자 수는 6종의 잼이 진열된 곳이 더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A 교수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그들의 구매 행위는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작정 선택지를 줄이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소비자는 하나의 대안만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를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이라고 한다. 대안이 하나만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 서로 비교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딸기잼 하나만 제시하면 뭔가 더 찾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심리에 구매를 ㉣ 재촉하고 다른 매장의 잼을 찾아보려 한다는 것이다.

10. 윗글의 ㉠ ~ ㉣ 중 문맥상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장 속 서술어가 주어 및 목적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해당 문맥에 맞는 의미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맥상 적절한 표현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앞뒤 내용의 인과관계에도 맞아야 한다. 하나의 대안만 제시되면 소비자는 다른 대안을 찾아 비교하려 하므로 구매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게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선호하는'은 소비자가 여러 상품 가운데 특정 상품을 더 좋아한다는 뜻으로, 뒤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수식한다.

② O — ㄴ의 '불안하게 하는'은 더 적합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문맥에 맞는다.

③ O — ㄷ의 '주저하게 만드는'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소비자가 최종 선택을 망설이게 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④ X — ㄹ의 '구매를 재촉하고'는 문맥상 부적절하다. 하나의 대안만 제시되면 소비자는 다른 대안을 찾아 비교하려 하므로 구매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미루게 된다. 따라서 '구매를 미루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재촉하다'의 주체와 대상만 살피면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를 재촉한다는 호응 문제에만 주목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단일 대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가 구매를 미루고 다른 매장의 상품을 탐색한다는 앞뒤 문맥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의 사전적 의미와 문장 성분의 호응을 확인한 뒤, 그 행동이 앞뒤 문장의 원인과 결과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 비교하려는 심리가 구매 지연으로 이어진다.

암기 포인트

다른 대안을 더 찾아 비교하려는 상황에서는 구매를 '재촉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NoteBase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중인은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는 계급적 중간성에서 붙여진 호칭이다. 중인 계층은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양반 사대부로부터는 하대를 받았지만, 상민들보다는 지위가 높았다.
>
>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기술직 중인들은 관직을 이용해 부를 쌓아 정치적 권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서얼들은 통청※ 운동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대부 반열에 오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중인 계층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이들의 지향점과 활동은 다르지 않아서, 서얼들의 통청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기술직 중인들도 통청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 중인 계층은 한학에 대한 지식을 쌓고 문예에서도 양반 사대부와 동등하게 활동하였다. 그것은 양반 사대부와 학문적으로 문예적으로 교류하며 사귀어야만 ㉠ 그들의 인정을 받고 관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 그들은 학문과 문예뿐만 아니라 실무 영역에서도 실력을 쌓아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요구를 관철해 나갔다. 학예와 실무 영역에서 상당한 경지에 오른 ㉢ 그들은 양반 사대부에 필적하는 사회 세력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 그들은 신흥 학문으로 무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조선의 지배층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 통청: 벼슬아치가 될 자격을 얻는 일

11.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인 계층의 학예와 실무 실력이 그들의 신분 상승과 세력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② 중인 계층은 여러 부류로 나뉘어 있었지만, 신분 상승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③ 중인 계층은 양반 사대부와 상민 사이에서 두 계층 간의 교류를 촉진한 집단이었다.

④ 중인 계층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것이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중인 계층의 사회적 위치, 신분 상승 노력, 양반 사대부와의 교류 목적을 근거로 추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던 중간 계층이다. 이들은 관직 진출을 요구하고, 학문과 실무 능력을 쌓으며, 양반 사대부와 문예적으로 교류하여 인정을 얻는 방식으로 신분과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중인은 학문적 지식을 쌓고 실무 영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신분과 역할에 대한 요구를 관철했으며, 상당한 경지에 오른 뒤 양반 사대부에 필적하는 사회 세력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학예와 실무 실력이 신분 상승과 세력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② O — 중인 계층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지향점과 활동은 다르지 않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서얼과 기술직 중인 모두 통청을 요구하고 관직 진출 또는 사회적 인정을 추구했으므로, 신분 상승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두 계층 간의 교류를 촉진한 집단'이다. 중인이 양반과 상민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신분적 위치를 뜻할 뿐, 두 계층의 교류를 촉진했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이었으며, 관직 진출과 신분 상승을 위해 양반 사대부와 학문적·문예적으로 교류한 집단'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글은 중인이 신흥 학문으로 무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양반과 상민 사이에 위치했다'는 신분적 위치를 '양반과 상민의 교류를 촉진했다'는 사회적 기능으로 바꾸어 놓았다. 글에 나온 양반과의 교류도 양반의 인정을 받아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양반과 상민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서술이 글의 사실에서 직접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특히 '사이에 위치하다'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교류를 촉진하다'처럼 기능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확대했는지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중인은 중간 신분이었고, 통청 운동과 학문·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중간에 있다는 사실이 곧 두 계층을 연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중인은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는 계급적 중간성에서 붙여진 호칭이다. 중인 계층은 조선 사회의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양반 사대부로부터는 하대를 받았지만, 상민들보다는 지위가 높았다.
>
>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기술직 중인들은 관직을 이용해 부를 쌓아 정치적 권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서얼들은 통청※ 운동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대부 반열에 오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중인 계층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이들의 지향점과 활동은 다르지 않아서, 서얼들의 통청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기술직 중인들도 통청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 중인 계층은 한학에 대한 지식을 쌓고 문예에서도 양반 사대부와 동등하게 활동하였다. 그것은 양반 사대부와 학문적으로 문예적으로 교류하며 사귀어야만 ㉠ 그들의 인정을 받고 관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 그들은 학문과 문예뿐만 아니라 실무 영역에서도 실력을 쌓아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요구를 관철해 나갔다. 학예와 실무 영역에서 상당한 경지에 오른 ㉢ 그들은 양반 사대부에 필적하는 사회 세력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 그들은 신흥 학문으로 무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조선의 지배층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 통청: 벼슬아치가 될 자격을 얻는 일

12. 윗글의 ㉠ ~ ㉣ 중 지시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명사 '그들'이 가리키는 앞말을 문맥에 따라 찾고,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지시 대상은 대명사 자리에 앞말을 넣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고 내용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찾는다. ㉠은 중인이 인정받아야 할 상대인 '양반 사대부'를 가리키고, ㉡·㉣·㉤은 모두 학문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인 계층'을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 O

㉠의 '그들'은 중인이 학문적·문예적으로 교류하며 인정을 받아야 했던 '양반 사대부'를 가리킨다. ㉡·㉣·㉤과 지시 대상이 다르므로 정답이다.

② ㉡ X

㉡의 '그들'은 앞에서 말한 '중인 계층'을 가리킨다. 학문과 문예뿐 아니라 실무 영역에서도 실력을 쌓았다는 내용의 주체가 중인 계층이기 때문이다. 틀린 선택은 ㉡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를 가리키는 ㉠이다.

③ ㉣ X

㉣의 '그들'은 학예와 실무 영역에서 경지에 올라 양반 사대부에 필적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중인 계층'을 가리킨다. 틀린 선택은 ㉣이 아니라 ㉠이다.

④ ㉤ X

㉤의 '그들'은 신흥 학문으로 무장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위상을 갖게 된 '중인 계층'을 가리킨다. 틀린 선택은 ㉤이 아니라 ㉠이다.

오답 포인트

㉠ 바로 앞에도 중인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을 중인 계층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인정을 받고 관직으로 나가는' 주체는 중인이며, 그 인정을 해 주는 상대인 ㉠의 '그들'은 양반 사대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대명사를 가장 가까운 명사로만 연결하지 않고, 대명사 자리에 후보 명사를 직접 넣어 행위의 주체와 상대가 문맥에 맞는지 확인한다. 여러 표시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문제에서는 각 문장의 주체를 먼저 이어 본다.

암기 포인트

㉠은 인정하는 양반 사대부, ㉡·㉣·㉤은 성장하는 중인 계층이다.

NoteBase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각본이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한 ㉠ 서책을 말한다. 또한 조선 중후기 이래 민간 출판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 서책을 일컫기도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방각본은 1576년 간행된 백과사전인 『고사촬요』이다. 이외에도 『천자문』과 같은 아동용 교재, 옥편과 같은 자전류, 사서삼경 등의 유학서, 『사략』과 같은 역사서도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 고전소설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방각본 작품은 1725년에 간행된 『구운몽』이다. 그런데 확대된 독자층의 수요에 부응하여 본격적으로 방각본 소설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라 할 수 있다. 즉 『조웅전』, 『유충렬전』 등의 영웅소설과 『춘향전』, 『심청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이 ㉢ 서책으로 간행된 것이다. 20세기 초 근대식 인쇄술이 서양으로부터 전래되면서 연활자 혹은 납활자라고 불리는 활자를 활용하여 ㉣ 서책의 대량 출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각본은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연활자 인쇄술로 간행된 작품은 '구활자본', '활자본', '연활자본' 등으로 불리었다. 1906년 1월 박문사에서 발행한 『서상기』가 최초의 구활자본 고전소설로 알려졌고, 1907년 광학서포에서 『혈의누』가 간행되면서 신소설도 구활자본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1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0세기에 들어와서 활자본 고전소설이 간행되었다.
②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방각본 소설은 16세기에 간행되었다.
③ 소설뿐만 아니라 아동용 교재, 자전류, 유학서, 역사서도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
④ 19세기 이후에 방각본 소설이 본격적으로 간행된 것은 독자층의 수요에 부응한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방각본의 개념과 간행 시기·종류에 관한 세부 정보를 지문의 표현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방각본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한 서책이다. 지문은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방각본과 가장 이른 방각본 고전소설을 구별한다. 전자는 1576년에 간행된 『고사촬요』이고, 후자는 1725년에 간행된 『구운몽』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20세기 초 근대식 인쇄술이 전래된 뒤 『서상기』와 『혈의누』 등이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와 활자본 고전소설이 간행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장 오래된 방각본 소설은 16세기에 간행되었다'이다. 16세기에 간행된 『고사촬요』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방각본이며, 가장 이른 방각본 고전소설은 1725년, 즉 18세기에 간행된 『구운몽』이다. 올바르게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방각본 고전소설은 18세기에 간행되었다'이다.
③ O - 지문은 소설 외에도 『천자문』 같은 아동용 교재, 옥편 같은 자전류, 사서삼경 등의 유학서, 『사략』 같은 역사서가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고 제시한다.
④ O - 지문은 확대된 독자층의 수요에 부응하여 방각본 소설이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시기를 19세기 이후라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가장 오래된 방각본'과 '가장 이른 방각본 고전소설'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고사촬요』의 1576년과 『구운몽』의 1725년을 각각 어떤 대상의 최초 기록인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초·가장 오래된·가장 이른 같은 표현이 나오면 대상의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이 지문에서는 '방각본 전체'와 '방각본 고전소설'을 나누고, 각 대상에 연결된 작품명과 연도를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방각본 전체의 최고본은 1576년 『고사촬요』, 방각본 고전소설의 최초는 1725년 『구운몽』이다.

NoteBase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각본이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한 ㉠ 서책을 말한다. 또한 조선 중후기 이래 민간 출판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 서책을 일컫기도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방각본은 1576년 간행된 백과사전인 『고사촬요』이다. 이외에도 『천자문』과 같은 아동용 교재, 옥편과 같은 자전류, 사서삼경 등의 유학서, 『사략』과 같은 역사서도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 고전소설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방각본 작품은 1725년에 간행된 『구운몽』이다. 그런데 확대된 독자층의 수요에 부응하여 본격적으로 방각본 소설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라 할 수 있다. 즉 『조웅전』, 『유충렬전』 등의 영웅소설과 『춘향전』, 『심청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이 ㉢ 서책으로 간행된 것이다. 20세기 초 근대식 인쇄술이 서양으로부터 전래되면서 연활자 혹은 납활자라고 불리는 활자를 활용하여 ㉣ 서책의 대량 출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각본은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연활자 인쇄술로 간행된 작품은 '구활자본', '활자본', '연활자본' 등으로 불리었다. 1906년 1월 박문사에서 발행한 『서상기』가 최초의 구활자본 고전소설로 알려졌고, 1907년 광학서포에서 『혈의누』가 간행되면서 신소설도 구활자본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14. 윗글의 ㉠ ~ ㉣ 중 문맥상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형태의 단어인 '서책'이 문맥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여, (가)의 '방각본'에 해당하는 용례와 일반적인 책을 뜻하는 용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각본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한 책이다. 따라서 '서책'이 민간 출판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간행한 방각본을 가리키면 (가)에 해당하고, 인쇄 방식과 관계없이 책 일반을 가리키면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O
(가)의 정의에서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각하여 출판한 서책'이라고 하였으므로, ㄱ은 곧 방각본을 가리킨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에 해당한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② ㄴ O
'조선 중후기 이래 민간 출판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서책'은 앞에서 정의한 방각본을 다시 풀어 쓴 것이다. 따라서 ㄴ도 (가)에 해당하며,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③ ㄷ O
영웅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 '서책으로 간행된 것'은 바로 앞 문장의 '본격적으로 방각본 소설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ㄷ은 방각본으로 간행된 소설책을 가리키므로 (가)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ㄷ은 (가)에 해당한다'이다.

④ ㄹ X
ㄹ은 근대식 연활자나 납활자를 활용하여 대량 출판된 책 일반을 가리킨다. 판각하여 출판한 방각본이 아니라, 방각본의 활발한 간행이 끝나게 된 계기가 된 새로운 인쇄 방식의 서책이므로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네 곳에 모두 같은 '서책'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뜻도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ㄱ·ㄴ·ㄷ은 앞뒤 문장에서 방각본을 가리키고, ㄹ은 연활자나 납활자로 대량 출판된 책 일반을 가리킨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시 대상이 같은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해당 단어만 보지 않고 앞뒤의 수식어와 문장 관계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민간인·영리 목적·판각'이면 방각본이고, '연활자·납활자·대량 출판'이면 방각본이 아닌 근대식 인쇄 서책이다.

암기 포인트

방각본은 민간 영리 출판의 판각본이고, 연활자·납활자로 찍은 책은 방각본이 아니다.

NoteBase

15.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철수가 불국사도 방문하지 않고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는다면, 석굴암을 방문한다. 그런데 철수는 석굴암을 방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철수는 천마총을 방문한다.

① 철수는 불국사를 방문한다.
② 철수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
③ 철수는 불국사 혹은 석굴암을 방문한다.
④ 철수는 불국사 혹은 천마총을 방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건문의 대우와 선언지 제거를 이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추가 전제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첫째 전제의 대우: '철수가 석굴암을 방문하지 않는다'이면 '철수가 불국사와 천마총 중 적어도 한 곳은 방문한다'가 된다. 이를 둘째 전제와 결합하면 '철수는 불국사 혹은 천마총을 방문한다'가 도출된다. 여기서 '철수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추가하면 불국사 가능성이 제거되므로 '철수는 천마총을 방문한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철수는 불국사를 방문한다’는 전제를 더하면 불국사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남으므로 천마총 방문을 확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불국사를 방문한다’이며, 올바른 추가 전제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이다.

② O
이미 ‘불국사 혹은 천마총을 방문한다’가 도출되어 있으므로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를 더하면 남은 가능성인 천마총 방문이 확정된다.

③ X
‘불국사 혹은 석굴암을 방문한다’를 더하고 석굴암 방문을 부정하면 불국사 방문만 도출될 뿐, 천마총 방문은 확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불국사 혹은 석굴암을 방문한다’이며, 결론에 필요한 올바른 추가 전제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이다.

④ X
‘불국사 혹은 천마총을 방문한다’는 이미 기존 두 전제에서 도출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다시 추가해도 어느 한 곳을 특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불국사 혹은 천마총을 방문한다’이며, 결론에 필요한 올바른 추가 전제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불국사 혹은 천마총을 방문한다’가 곧 ‘천마총을 방문한다’를 뜻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혹은’으로 연결된 두 가능성 중 천마총만 남기려면 불국사 방문을 부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건문의 결론이 부정되면 먼저 대우를 적용한다. 그 결과가 ‘A 혹은 B’이고 B를 결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면, A를 부정하는 전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A 혹은 B’에서 ‘A가 아니다’를 더하면 B가 남는다.

NoteBase

16.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생명이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의 핵심은 '산화환원(redox) 반응'이다. 예를 들어 장작이 탈 때 나무에 함유된 탄소와 수소는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를 공기 중의 산소에 내주면서 서로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해 불이 뜨겁게 된다. 전자가 산소에 붙잡혔을 때 환원(reduction)되었다고 하고, 산소에 전자를 준 탄소와 수소는 산화(oxidation)되었다고 하며, 산화와 환원을 합쳐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은 산소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물질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궤도에 전자를 다 채우지 못하여 불안한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기증받으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데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한다.
>
> 살아 있는 세포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침 식사로 먹은 원자에서 분리된 전자가 곧바로 산소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만약 전자가 산소에 곧바로 들어간다면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열에너지에 세포가 데어 상하게 될 것이다. 음식이 기증한 전자는 일련의 산화환원 반응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 산소에 무사히 다다르지만, 전자는 하나의 분자 수용체에서 다른 분자 수용체로 뛰어내리면서 소량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모든 원자 중에서 전자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산소는 제일 아래층에서 기다리다가 전자가 다다르면 단단히 끌어안으면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 내고, 이것으로 세포의 에너지 방출 과정은 마무리된다.

① 전자의 이동이 없이도 산화환원 반응은 일어난다.
② 원자 중에서 궤도에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를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③ 살아 있는 세포에서는 전자가 분자 수용체를 단계적으로 거쳐 가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④ 살아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에너지 방출 과정은 전자가 산소에 결합됨으로써 끝난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인 전자 이동과 살아 있는 세포에서 전자가 단계적으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이해했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산화환원 반응은 물질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다. 전자를 주는 물질은 산화되고 전자를 받는 물질은 환원된다. 살아 있는 세포에서는 전자가 여러 분자 수용체를 차례로 거치며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하고, 마지막에는 산소에 결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전자의 이동이 없이도'가 틀린 표현이다. 산화환원 반응에는 물질 사이의 전자 이동이 포함되므로, 올바르게는 '전자의 이동을 통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이다.
② O — 궤도에 전자가 부족한 불안정한 원자가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받으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는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O — 살아 있는 세포에서는 전자가 하나의 분자 수용체에서 다른 수용체로 이동하며 여러 단계의 산화환원 반응을 거친다는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④ O — 전자는 여러 분자 수용체를 거친 뒤 전자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산소에 마지막으로 결합하므로, 세포의 에너지 방출 과정이 산소와의 결합으로 마무리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제시문 첫머리의 '산소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를 '전자의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로 바꾸어 놓았다. 산소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은 가능하지만, 전자 이동이 없는 산화환원 반응은 제시문의 정의에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소의 참여 여부와 전자의 이동 여부를 구별한다. 산화환원 반응의 필수 기준은 산소 자체가 아니라 전자의 이동이며, 세포에서는 전자가 수용체들을 단계적으로 거쳐 마지막에 산소에 결합한다.

암기 포인트

산화환원은 전자 이동, 세포의 전자는 단계적 이동, 마지막 수용체는 산소이다.

NoteBase

17. (가) ~ (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눈이 많이 내렸지만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나)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 ].

①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다
② 눈이 많이 내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③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④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건문의 대우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 여러 전제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건문의 대우: ‘A이면 B이다’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는 서로 같은 뜻이다.
드모르간 법칙: ‘눈이 많이 내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의 부정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이다.
(나) ‘차량 운행이 어렵다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와 (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를 결합하면, (나)의 대우에 따라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어서 (가)의 대우를 적용하면 ‘눈이 많이 내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전제에서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이다.

② X
‘눈이 많이 내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두 사실을 모두 확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전제는 눈이 많이 내렸는지 자체를 확정하지 않으며, 올바른 결론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이다.

③ O
(나)와 (다)에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가)의 대우에 적용하면 ‘눈이 많이 내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므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가 반드시 성립한다.

④ X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전제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의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올바른 결론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눈이 많이 내렸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두 조건의 결합을 부정할 때 접속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A이고 B이다’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이므로, 여기서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가 된다. 또한 ‘거나’는 둘 중 하나만을 뜻하는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과를 부정하는 전제가 나오면 조건문을 대우하여 원인을 부정한다. 이때 원인이 여러 조건의 ‘그리고’ 결합이면, 그 전체의 부정은 각 조건을 부정한 뒤 ‘또는’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A이고 B’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이다. 결과의 부정에서 출발해 조건문의 대우를 연쇄 적용한다.

NoteBase

18.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최근 우리나라에서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법률(「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현재의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
> ㉠ 찬성 측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게 되면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 반대 측은 다른 나라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었는데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낮추는 데 반대한다.

① ㉠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은 청소년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면 이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장과 근거 사이에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지, 제시된 자료가 주장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논증 분석에서는 먼저 주장과 근거를 구분한 뒤, 근거에서 주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생략된 전제를 찾는다. ㉠은 '처벌 가능성 인식이 흉악 범죄를 억제한다'는 인과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은 '외국의 연령 하향 사례에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비교 사례를 근거로 삼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결론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면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억제 효과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② O
㉠은 기준 나이 하향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범죄가 억제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흉악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라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근거는 기준 나이 하향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어 오히려 ㉡의 반대 주장을 약화한다. 올바르게는 기준 나이를 낮추어도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례나, 연령 하향과 범죄 감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O
㉡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정책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려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이 비교 가능하여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는 표현은 언뜻 범죄 문제의 해결 근거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은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 아니라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을 강화한다. 근거의 내용뿐 아니라 그 근거가 어느 주장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입장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선지의 근거를 추가했을 때 그 결론의 설득력이 커지는지 확인한다. 설득력이 커지면 필요한 근거이고, 반대 결론이 강해지면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암기 포인트

근거의 적절성은 '그 근거가 어느 쪽 결론을 강화하는가'로 판단한다.

NoteBase

19.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별적인 남녀와 가족이 있을 뿐이다." 사회란 단지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사회 자체가 어떤 독자적 성질을 지닌 존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할 의무를 버리고, 실체도 없는 '사회'에 자신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
> 적어도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발적 행동, 그리고 자립을 최우선으로 옹호해야 한다. 개인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자신이 선택한 사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사람들이 서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순수한 '야경꾼'으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① 조직 구성원 각자에게 제공되는 상여금이 조직 전체에 제공되는 상여금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② 오늘날의 세계에는 야경꾼 기능만 하는 국가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③ 팀의 성적보다 팀원 개인의 성적이 연봉 협상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④ 옛말 중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문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반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논지 약화는 글의 결론과 양립하기 어렵거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의 신뢰성을 낮추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일 뿐 독자적 실체가 아니므로 개인의 자유와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권리 침해만 막는 '야경꾼'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야경꾼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글의 국가관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심하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조직 전체의 일괄 상여금보다 구성원별 상여금이 업무 효율을 더 높인다는 내용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적 동기를 중시하는 글의 관점과 잘 맞으므로 논지를 약화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 사례를 약화 근거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개인 단위의 보상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글의 논지에 힘을 보태는 사례이다.

② O
현실에는 권리 침해 방지만 담당하는 야경꾼 국가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가 순수한 야경꾼으로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글의 주장과 어긋나는 현실적 반례이므로 논지를 가장 적절하게 약화한다.

③ X
팀 전체의 성적보다 팀원 개인의 성적을 연봉 협상에서 더 중시한다는 내용은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글의 관점과 일치하므로 논지를 약화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를 반대 근거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강조하여 글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④ X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은 국가나 사회의 구제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글의 주장과 통한다. 틀린 표현은 이 속담을 약화 근거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국가의 구제보다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글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조직이나 팀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주의적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보상과 평가의 초점이 개인에게 있는지이다. 두 선지는 모두 개인을 우선하므로 약화가 아니다. ④도 '구제'라는 말에 주목하기보다 국가의 구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뒤 각 선지가 그 결론의 가능성을 낮추는지 확인한다. 결론과 같은 방향의 사례는 강화이고, 결론과 충돌하는 현실이나 예외는 약화이다.

암기 포인트

약화 선지는 결론의 반대말이 아니라, 결론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반례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끼오리는 '각인'이라는 강력한 학습 방식을 통해 제 어미를 따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는 부화 후 15분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새끼오리는 각인이 이루어지는 이 민감한 시간 동안 목격한 물체를 어미로 알고 따라다니는 것이다.
>
> 이번 연구의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진은 새끼오리들이 부화한 후 15분 동안 특정 모양의 움직이는 물체 한 쌍을 보여 주었다. 그 후 처음 각인된 물체와 모양이 비슷한 쌍과 완전히 다른 여러 쌍을 준비해 실험하였다. 이 상황에서 새끼오리들이 처음 각인된 한 쌍의 물체와 비슷한 모양을 찾아내 따라가는지 관찰한 것이다.
>
> 먼저, 사각형 모양의 물체 두 개로 구성된 한 쌍을 새끼오리에게 각인시켰다. 그 후 연구진은 삼각형 모양인 물체 하나와 사각형 모양인 물체 하나의 합으로 구성된 한 쌍, 둘 다 사각형 모양으로 된 물체 한 쌍, 삼각형 모양으로 된 물체 하나와 원형 모양으로 된 물체 하나의 합으로 구성된 한 쌍을 새끼오리에게 동시에 노출하였다. 그 결과, 새끼오리는 사각형 모양 한 쌍을 따라갔다. 이어진 이 실험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물체 한 쌍에 각인된 새끼오리는 준비된 여러 쌍 중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구성된 물체 한 쌍을 따라갔다. ㉡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새끼오리들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 기>

ㄱ. 새끼오리가 부화한 후 15분 동안 함께 있었던 오리가 아닌 다른 오리를 따라간다면, 이는 ㉠을 약화한다.

ㄴ. 준비된 여러 쌍 중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물체 한 쌍을 따라다니는 새끼오리들을 조사한 결과 그 물체 한 쌍에 각인되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는 ㉡을 강화한다.

ㄷ. 원 모양의 물체 두 개로 구성된 한 쌍을 새끼오리에게 각인시킨 후 원 모양의 물체 두 개로 구성된 한 쌍을 삼각형 모양의 물체 하나와 사각형 모양의 물체 하나로 구성된 한 쌍과 동시에 노출하였더니 새끼오리가 원 모양의 물체 두 개로 구성된 한 쌍을 따라갔다면, 이는 ㉡을 약화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새로운 관찰 결과가 각인에 관한 주장 ㄱ과 '같음·다름'의 관계를 구별한다는 결론 ㄴ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사각형 두 개로 된 한 쌍에 각인된 새끼오리가 여러 쌍 중 사각형 두 개로 된 한 쌍을 따라갔다. 이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된 한 쌍에 각인된 새끼오리는 여러 쌍 중 서로 다른 모양으로 된 한 쌍을 따라갔다. 두 실험을 함께 보면 새끼오리가 개별 모양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한 쌍을 이루는 두 물체의 관계가 '같음'인지 '다름'인지도 구별했다는 결론 ㄴ이 뒷받침된다.

핵심 개념

강화는 어떤 주장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고, 약화는 그 주장의 개연성을 낮추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가 주장과 양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약화가 되지 않으며, 경쟁 설명을 배제하거나 주장의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 주는지가 중요하다.

적용 기준

ㄱ은 부화 직후 함께 있던 특정 대상을 어미로 알고 따라다닌다는 설명이므로,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오리를 따라간다는 결과는 ㄱ의 설명력을 낮춘다. ㄴ은 '같음·다름'이라는 관계의 구별에 관한 결론이므로, 서로 다른 모양의 쌍에 각인된 뒤 다른 모양으로 구성된 쌍을 선택했다는 결과는 ㄴ을 강화한다. 반면 원 두 개에 각인된 뒤 다시 원 두 개를 선택한 결과는 ㄴ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ㄴ을 약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평가는 ㄱ과 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적절하지만 ㄴ도 적절하므로 ㄱ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을 함께 골라야 한다.
② O — ㄱ은 각인된 특정 오리가 아닌 다른 오리를 따라가는 결과가 주장 ㄱ을 약화한다는 평가이고, ㄴ은 서로 다른 모양의 쌍에 각인된 새끼오리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구성된 쌍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결론 ㄴ을 강화한다는 평가이다. 둘 다 적절하다.
③ X — ㄴ은 적절하지만 ㄷ은 적절하지 않고, 적절한 ㄱ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을 골라야 한다.
④ X — ㄱ과 ㄴ은 적절하지만 ㄷ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세 항목을 모두 고를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만 골라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ㄷ의 결과가 '같음·다름' 구별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ㄴ을 약화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원 두 개에 각인된 새끼오리가 다시 원 두 개를 선택한 결과에는 익숙한 원 모양을 따른다는 설명과 같은 관계를 따른다는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므로 ㄴ을 추가로 강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하지만, ㄴ과 충돌하는 반례도 아니어서 ㄴ을 약화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주장이 예상하는 결과를 적고 새 증거가 그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새 증거가 경쟁 설명을 배제하면 강화, 주장의 예상에 어긋나면 약화, 주장과 경쟁 설명 모두에 들어맞으면 중립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보기 판단의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증명하지 못함이 곧 약화는 아니다.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여야 약화가 된다.

NoteBase